

# 사회복지·사회사업 학과의 교육체제 현황과 과제

## 조 흥 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1. 사회복지학 교육의 특성

시 민사회가 발전할수록 인간욕구와 관련된 사회문제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불충족은 물론 사회적 차별, 소외, 불평등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어 갔으며, 이러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성립된 사회과학의 하나가 사회복지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학은 인간의 구체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과학적인 지식과 이론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선이나 박애와는 구별되며, 동시에 실제적 서비스를 담당하기 때문에 순수이론 학문이기보다는 응용과학적이며 실천과학적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볼 때 사회과학과 사회복지학은 과학으로서 상관성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즉각적인

기술을 토대로 하는 전문가 양성의 사회복지학 자체가 가지는 독특한 특징에 의해 차이점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일찍이 구미에서는 사회사업학이란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사회복지학은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적인 쟁점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첫째,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개념적인 명료화 논쟁이다.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사업이 전문성을 심화시켜 가고, 공공부분의 사회복지가 제도와 분야로서 확대되어 가자 사회복지와 사회사업 간의 개념적인 분리가 이루어졌다. 사회복지가 사회제도를 가리키는 데 반해, 사회사업은 전문직을 이룬다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광범위하게 합의하고 있으나 더욱 구체적인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둘째, 교육내용에서 사회변화와 개량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개인의 원조에 주안점을 두어 원조기술을 세련시키는 데 초점을 둘 것이냐 하는 ‘사회운동적 성격 대 기능적 성격’에 관한 논쟁이다. 거시(macro)복지와 미시(micro)복지, 직접서비스와 간접서비스, 정책론과 기술론의 이분법적 논의가 그치지 않고 있으며, 사회복지학 교육의 내용과 교과과정 구성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두 접근을 어떻게 하나의 전문직의 실체로 통합하느냐 하는 것이 늘 사회복지학계의 관심이 되고 있다 고 하겠다.

셋째, 사회복지 실천방법에서 통합과 전문분화 간의 균형 및 조화와 관련된 논쟁이다. 사회복지 전문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다양한 활동과 방법들이 모여서 형성된 것이고, 아직도 다른 전문직과 구별되는 결정적인 방법론의 개발이 취약한 상태에 있으므로 전문성의 제고를 위한 전문적 분화는 양면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통합적인 방법론의 개발이 전문직업의 전체적인 정체성(identity)을 고양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는 반면, 전문직의 전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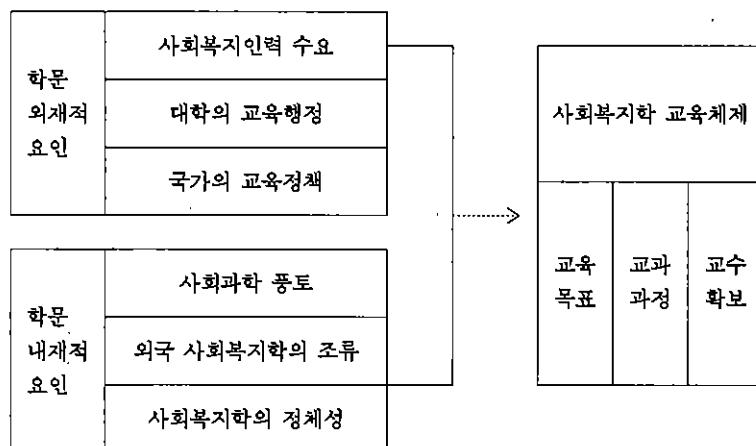
·효과성 개선에는 비효율적일 수 있는데, 전문적 분화는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겠지만 전체적인 전문직업으로서의 응집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 2. 사회복지학 교육체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

우리나라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교육체제가 본격적으로 갖추어진 것은 1947년 이화여대에 기독교사회사업학과가 창설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95년 초까지 사회복지학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수는 4년제 대학이 46개교, 전문대학이 8개교 그리고 국립사회복지연수원 등 55개 교육기관으로 증가하였다.

사회복지학 교육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특정한 단일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교육정책적·학문적·이념적 요인 등의 복합 요인들이 상호연관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제 요소들간의 관계를 모형화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사회복지학 교육체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

## 1) 학문외재적 요인

### ①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인력 수요의 변화

해방 이후 사회사업교육 도입으로부터 시작하여 1980년대에는 사회사업교육과 사회복지 교육이 통합되기 시작하였으며, 학과 명칭이 점차 사회사업보다는 사회복지로 정리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이같이 방대한 한국 사회복지학의 포괄 범위의 확대는 한국사회의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급속한 경제성장에 의한 산업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공적 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제도의 확충에 의한 사회복지전문요원·사회복지관 담당 전문직원·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인력 등의 사회복지 수요가 급증한 데서 찾을 수 있다.

### ② 국가의 교육정책의 변화

교육부에 의한 최소 졸업학점의 변화는 사회복지학 교육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1970년대 까지 160학점 졸업은 전공과목의 이수를 많이 하도록 했으나, 1980년대 이후 140학점 졸업은 전공과목의 수를 축소시켰다. 더구나 1994년 7월 교육부가 '학과 통·폐합 및 계열별 교육과정 운영(학부제 또는 학군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힘에 따라 앞으로 더욱 많은 대학에서 학과를 통·폐합할 전망이다.

이러한 교육부의 학부제 정책은 특히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학사과정에서 받도록 하고 있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책임교과목 강의(필수과목 10개와 선택과목 4개 등 14개 과목이 책임교과목인데, 필수과목은 사회복지(사업)개론, 사회복지법 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보장론, 개별지도, 집단지도, 지역사회조직, 사회복지조사,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실습 등이며, 선택과목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사업통합방법론 중 1과목 이상, 아동 및 가정복지, 산업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의료사회사업, 부녀복지, 교정복지

론 중 1과목 이상, 사회복지정책, 자원봉사론, 지도감독론 중 1과목 이상, 사회심리학, 사회변동론, 사회문제, 정신위생 중 1과목 이상 등 임)를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사실상 학부제에서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③ 대학의 교육행정

사회복지학 교육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사회의 인력수요, 교육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학을 교육하고 있는 대학 내의 교육행정도 커다란 뒷을 차지한다. 대학교육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대학의 본래 기능인 교육, 연구, 사회봉사를 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학행정의 방향도 이를 잘하도록 지원함에 그 존재의의와 행정목표가 설정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 2) 학문내재적 요인

### ① 한국 사회과학 풍토의 변화

1948년 남한의 분단국가 수립은 친미·반공적 성격을 강화함으로써 한국 사회과학 전반이 대미 종속적인 구조적 한계 내에서 뼈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고, 실제로 학계의 인적 충원 역시 대미 편중적인 재생산구조를 갖추게 하였다. 해방 이전까지 전혀 학문적 입지도 갖고 있지 않았던 사회복지학이 기독교와 미국 정부의 절대적 영향 아래 이화여대(1947), 중앙신학교(1953), 그리스도 신학교(1958) 및 국립 서울대학교(1958)의 학과 설치 등 출발 양식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오늘까지 미국 사회사업학을 무비판적으로 추종·모방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도 지극히 당연하다.

1970년대 이후 주류 사회과학의 일각에서는 기존 한국사회의 지배적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적 자각을 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1980년대에 들어서는 대외종속적이고 체제유지적인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과 극복을 위한 논의가 강

하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사회과학의 조류는 사회복지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급변하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이 개별적인 사회화와 재사회화를 기본원리로 하는 미국식 전문 사회사업 기술로만 대처할 수 없다는 자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19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각종 사회복지제도가 구축되기 시작함으로써 사회복지학이 이러한 제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사회복지학은 인접 사회과학이 보여준 진보적 연구동향과 학문적 성과에 비해서 아직도 제도 개선 차원의 체제유지적 성격을 담습함으로써 전통적 교육체제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 ② 외국 사회복지학의 조류

한국 사회복지학의 확립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미국 사회사업학의 학문적 지향성은 미시적인 실천기술의 개발 및 이론화 작업에 전력하게 하였다. 그 결과 이론과 실제의 괴리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고, 동시에 현실적 합성 문제를 야기하였다. 특히 196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사회사업학을 수입, 모방한 아시아 각국이 개별 사회사업 중심인 미국 사회사업학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미국 사회사업학 자체도 1960년대의 대빈곤 전쟁 등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사회변화를 위한 거시적 접근을 강조하게 됨으로써 197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정책 분야가 강조됨과 동시에 토착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토착화는 선·후진 각국의 사회복지학이 갖는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이론 구축을 당연히 필요로 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작업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교육에도 실제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형편이다.

### ③ 사회복지학의 정체성

사회복지학이 갖는 고유한 학문으로서의 정체성 문제는 교육체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데, 우리나라 교육체제에 영향을 주는 논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학은 과연 독립학문이나 독립과학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따라서 단독학파나 대학원 설치 가능 유무가 결정된다. 그러나 독립과학이 되려면 학문으로서의 내적 체계인 전공분야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둘째, 사회복지학은 확립된 고유의 전공분야를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 한국 사회복지학의 전공분야는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으로 대별되어 있는데, 사회복지학이 독립학문이 되기 위한 과제는 이 두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광역 학문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각각 세련화하는 작업과 함께 이 둘을 통합하는 개념틀의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응용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학은 실천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론성이 약하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초이론이 아닌 실천이론의 확립이 과제가 된다.

## 3. 한국 사회복지학 교육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 1) 교육목표

우리나라 사회복지학 교육체제의 문제 중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목표의 현실적 부재를 들 수 있는데, 각 대학마다 또는 학과 나름대로의 목적 설정도 없이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목표에서 중요한 것은 대학의 일반 교육목표들과의 상호관계, 교과과정 전반에 걸친 목표, 각 교과목의 목표 등에 대한 합의인데, 이에 대한 공통적 기초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 2) 교과과정

사회복지학에서의 교과과정은 크게 ① 사회복지 기초부분, ② 방법 및 기술관계 부분, ③

사회복지정책 및 제도 부분, ④ 실습관계 부분, ⑤ 타학문 관련 부분 등 5가지로 대별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제도나 정책의 기반이 미비할 때는 학부에서 선진국 대학원 수준의 전문 교과목을 교육함으로써 사회복지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이 되기도 했고, 선진국의 임상사회사업 실천교육 위주로 교육하여 현실적인 거시적 사회문제에 대처하거나 지역사회 조직활동 및 서비스 전달체계에 따른 실천에 다소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그리고 대학간에 학년별·과정별·부분별 교과과정에서도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이는 40여 년의 역사를 지난 한국 사회복지학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각 학교간에 공동적 기초를 이룰 수 있는 교육목표에 대한 합의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교과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연구와 논의도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3) 교수 확보

교과과정 운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수한 자질의 교수 확보이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급격히 늘어난 사회복지학과 수에 비하여 자격있는 교수요원의 확보는 일반 사회과학계보다 훨씬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박사학위 소지자를 보면, 미국 박사가 제일 많으며 그 다음이 국내, 일본, 유럽 각국 등의 순으로 아직도 미국 편향적이며, 최근에는 일본 학위자가 증가하는 추세이어서 자주적인 교육과 토착화 모색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4. 한국 사회복지학 교육체제의 과제

### 1) 교육부의 학부제 교육정책에의 대응 과제

교육부가 발표한 바와 같이 유사학과를 묶어서 계열별 또는 학부별 교육을 권장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다. 그렇다면 전공교육을 학부

중심으로 할 것이냐, 대학원 중심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가 대두된다. 현재는 사회복지교육의 중심축이 학부과정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는 우리나라 사회복지교육의 출발과 무관하지 않지만, 사회복지 현장의 요구도 학부 출신 수요가 더 있지 않나 생각된다 (아마 이는 임금문제와 관련되는 것 같다). 이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현행 학부중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현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전문가적 수준의 교육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고 있는 고급 전문성의 요구에 맞추어 사회복지사 교육의 중심축을 대학원으로 옮겨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부는 일반 사회복지사 양성, 대학원은 전문 사회복지사 양성 및 학문후속세대의 양성 방향으로 역할 구분이 명백하게 될 것이다.

### 2) 대학별 사회복지학 교육목표의 확립 과제

각 대학마다 교육목표를 다양하게 세움으로써 특색있는 교육목표를 확립해야 한다. 예를 들면 A 대학은 기존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사회복지사 배출에 두고, B 대학은 사회복지행정 및 정책 전문가 배출에 두며, C 대학은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두고, D 대학은 인문사회과학 전반적인 교양교육에 두어 다양한 직업을 선택하게 하되 사회복지를 교양적 차원에서 교육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다.

물론 이때 모든 영역에서의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볼 때, 전문가의 수준과 질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합의된 표준 교과과정의 수립이 요구된다. 즉, 각 전문인력에 따라 공통된 과목설정, 과목의 방향과 내용, 최소 시간수, 평가방법, 각 과목들의 연계성과 통합성, 일관성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교육지침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 3) 대학/대학원별 사회복지학 교과과정의 편성 과제

① 방법론과 정책론의 이분법적 괴리의 해소 우리나라 사회복지학 교과과정은 방법론 대 정책론, 임상사회사업 대 사회복지정책, 미시복지 대 거시복지 등으로 너무 이분화하여 분리 교육되고 있어서 종합적인 각종 서비스 분야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분법적 괴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방법론을 특정한(specific) '임상사회사업론'과 일반적인(generic) '사회사업실천론'으로 나누고, 정책론도 사회복지조직 중심의 '사회복지행정론'과 거시적인 '사회정책론'으로 나누는 사분법적 분류를 바탕으로 교과과정을 재편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 ② 학부와 대학원 교과과정의 구분

현재 우리나라 교과과정은 미국 대학원 수준의 전문적인 교과과정을 그대로 대학의 학부과정에 단순 이식하여 교육함으로써 대학에서 배운 이론의 실무분야에서의 실천적 적용에 심각한 간격이 생기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학부, 대학원 교과과정의 내용에서 별다른 구분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대학, 대학원 석·박사 과정은 교과과정 내용면에서 연계성과 공통성을 갖되, 교육목표와 현장실습과 관련해서는 그 내용상 구분되고, 수준상 차이가 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부에서는 교양교육 및 general practice 중심으로 하며, 대학원에서는 advanced practice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대학원에서는 특수분야 전공선택을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실무분야별, 표적집단별, 문제별로 폭넓게 교과과정을 짜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각 대학별 교수 확보 문제와 직결된다.

#### ③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교과 과정 수립

급속한 사회변화에 비해 교과과정의 변화는 상당히 완만하며 미온적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실무자 양성교육이나 체제유지적인 학문후속세대 양성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 맥락과 관련된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발 및 새로운 사회복지 수요와 관련된 교과과정을 많이 확립해야 할 것이다.

#### ④ 진보주의적 시각을 담보하는 교과과정 편성

사회복지 교육의 기능이 대학 내에서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복지권을 주장하는 대변자적 기능을 수행하려면 새로운 교과과정이 설정되어야 한다. 기존의 교과과정이 개인적 적용을 강조하여 체제유지적 성향을 갖는 것이라면, 앞으로의 교과과정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자본주의 사회변동에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진보주의적 시각의 교과목도 많이 개설해야 할 것이다.

#### ⑤ 세계화/토착화에 맞는 교과과정 설정

세계화에 걸맞은 국제사회복지 영역의 교과과정 개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복지 현장실습지 개발, 학위 확장(extention)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교수 및 학생들의 국제 공동학술 및 연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편성한다. 동시에 사회복지학의 토착화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협연적 가족주의를 토대로 하는 가족복지, 지역사회와 공동체 중심의 사회행동 그리고 통일을 지향하는 사회복지학 교과과정 등을 마련한다.

#### ⑥ 표준 교과과정의 수립

사회복지 전문직의 위상 확립과 강화를 위하여 표준 교과과정을 시급히 수립한다. 나아가서 전문직의 자격과 기준을 정하고, 공인된 자격시험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연합된 교육기구를 설치한다.

### 4) 교수 확보 과제

미국의 경우, 사회복지 과목은 정규 사회복지교육을 인가받은 대학에서 이수한 교수들로

부터 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이후 갑자기 설치된 각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서는 학부나 대학원 과정의 어느 곳에서도 교육을 받지 않은 교수들이 사회복지교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교수채용 면에서,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재단의 전횡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대학 평가기준에 이러한 측면들이 면밀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복지학 교육의 세계화를 위하여 각국의 다양한 교육배경을 가진 자를 교수로 ‘많이’ 채용해야 한다.

### 5) 대학/대학원별 교육평가 과제

일반적으로 대학 및 대학원의 평가인정기준의 항목으로서 교육목표,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설비, 행정·재정 등 6가지를 들 수 있으며, 이와 함께 학생들의 평가체 도입,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적절하게 두는 방법 등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정하여 각 대학과 대학원이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표준화된 교육평가 기준을 토대로 한 평가결과가 반드시 대학행정 당국에 의해 개선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6) 대학의 올바른 교육행정 체제 확립 과제  
사회복지학이 요구하는 제반 여건을 대학 당국이 구축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각 대학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각 대학의 평교수협의회에 사회복지학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실천과학으로서 실습과 관련된 세팅 및 기자재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한국사회사업(복지)대학협의회’ 조직을 활성화하여 표준 교과과정 설정, 교과목 개발, 교육방법 개발 등 사회복지학 교육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한다. ■

---

조홍식/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청주대학교 교수와 영국 Hull 대학교 교환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서울대 사회복지학 교수로 재직중이며, 한국사회복지학회 이사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사회복지론』, 『사회사업실천론』, 『청소년복지론』, 『현대가족과 사회』 등이 있고, “도시빈곤가족문제에 대한 사회사업 실천에 관한 연구”, “장애인 소득보장의 실태와 대책”, “농촌빈곤가족의 사회적 욕구와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